현대소설연구(제9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4.12.96.35

본원적 축적과 면역정치를 통한 비체들의 재배치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을 중심으로*

김 영 삼**

요약

본고는 요산 김정한의 후기 소설을 대상으로 '비체'(abject)들이 다층적 지배권력에 의해 외부화되는 분리 과정을 계보화하고자 한다. 본원적 축적의 외부화, 생명정치의 외부화, 면역정치의 외부화를 방법론으로 삼는다. '제국-식민'의 분할은 1960년대에 이르러 '자본-비체'의 분할로 역진화하였고, 공유지는 적산불하의 방식으로 자본권력의 사적 소유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착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산수단으로부터 외부화되었으며, 이는 김정한 소설의 마스터 플롯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이를 '본원적 축적'의 관점에서 「모래톱 이야기」, 「독메」, 「평지」를 분석하였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분리'와 '청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지배권력의 결탁에 의한 국유지 횡령은 무엇보다 법률의 지원 아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다. 3장에서는 이를 법이 노예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은 비대칭적으로 작동하면서 미필적 고의와 무책임함을 보여주었다. 4장에서는 생명정치의 작동을 매개로 「축생도」, 「과정」, 「입대」를 분석했다. 생명정치 권력은 체계적인 모욕의 테크닉을 통해 도시 부랑자, 화전민, 광인, 질병보균자 등을 차별적 장소로 재배치했다. 5장에서는 면역정치의 측면에서 질병감염자들을 외부화하는 권력 작용을 분석했다. 전염병 환자들을 혐오적 아브젝트로 묘사하는 「제3병동」과 나환자들을 근대의 외부로 재배치하는 폭력적 과정

* 본고는 2024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제27회 요산김정한문학축전〉 중 10월 30일에 치러진 〈요산 김정한 심포지엄: 요산 김정한 문학과 공공성〉에서 발제된 글 「공유지의 사유화와 본원적 축적」을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힘.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을 서사화 한 「인간단지」가 사례들이다. 이를 통해 김정한 소설에서의 근대(성)을 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탁이 생산한 외부의 구축으로 정의하였다.

주제어: 김정한, 본원적 축적, 생명 정치, 면역 정치, 비체, 국가폭력, 성원권, 재배치

목차

1. 들어가며; 비체
2. 본원적 축적과 청소
3. 법과 노예
4. 수용과 격리
5. 면역정치와 재배치
6. 나가며; 확장의 과제들

1. 들어가며; 비체

김정한 소설의 근대(성)은 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탁이 생산한 '외부'의 구축으로 정의되어야 될 듯하다. 여기서 '외부'는 '공통적인 것'[1]에 대한

1)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란 공기, 물, 땅, 열매 등 자연이 주는 모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식, 정보, 언어, 정동 등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자연과 인공, 물질과 비물질을 모두 지시하면서 사회적 생산을 위한 가능성의 조건을 이루는 공통의 자산을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공동작업 중 하나인 『공통체』(정남영 · 윤영광 옮김, 사월의 책, 2014.)는 '제국'이 구축하려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혁명적 프로그램으로 '공통적인 것'을 재정초하는 기획이면서, 한편으로는 '공통적인 것'의 나눔(partage)의 방식을 독점하려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폭로하는 작업으로도 독해할 수 있다.
김정한의 소설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축출되는 장소가 '공통적인 것'들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려는 이른바 '유력자'들의 통치술이 작동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두루 배치된 땅, 산, 갯벌, 수원지 등의 장소들은 1960~70년대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의 통치술의 시험장이라는 점에서 이 장소들을 '공통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요청된다.

소유로부터 배제된 '비체(卑體, abject)'[2]들의 장소이다. 근대성의 세계에서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없는 존재, 삶 자체가 지워져버리는 존재, 삶-정치의 감각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고 교란하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분리되는 존재인 비체는 김정한의 소설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땅)에서 바깥의 장소로 밀려나는 존재들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체의 탄생은 동일성의 논리에 기반한 근대(성)이 자신과 다른 것을 '내가 아닌 것', '나를 오염시키는 것', '바깥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치적 기획의 결과물이다.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들에서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러한 비체와 같은 인물들의 서사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배제하고 축출한 '정치와 치안'(랑시에르)의 통치술을 노출시키고 그 폭력성을 폭로한다. 이 글은 비체들이 삶-정치의 외부로 배치되는 과정을 재독하면서, 그 내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은폐의 정치술을 드러내려는 기획의 일환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제국/식민'의 분배에 착종되었던 국가, 인종, 언어(일본-내지인-국어/조선-반도인-조선어) 등의 삶-정치적(bio-politics) 분할 요소들은, 김정한의 후기 소설이 발표되었던 1960년대 후반 군부독재 시절에 이르러서는 '근대/야만'이라는 '낯설지만 익숙한' 괴물로 역진화하였다.

---

2)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공포의 권력』(서민원 옮김, 동문선, 2001.)에서 정식화한 개념인 '비체'는 본래 부패하는 육체나 오물과 같이 문화적 인간에게 경고로 작동하면서 즉각적인 혐오 반응을 유발하는 것들이다. 오염에 대한 혐오를 표상하는 비체는 그 존재만으로 삶/죽음, 내부/외부, 표준적 근대/야만적 자연, 남성/여성, 주체/타자, 나/너 사이의 경계선에서 후자에 속하면서 모욕의 대상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전자의 대상들의 권위에 분열을 일으킨다. 비체는 곧 외부적인 것이며 여성적인 것이며 상징계적 질서의 바깥으로 추방된 '구성적 외부'로서 '내부'의 작동원리를 폭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부'를 단단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려는 근대의 동일성 논리가 비체를 혐오와 불안의 생산물로 취급하면서 끊임없이 외부로 축출할수록 '내부'의 취약함과 폭력성을 자인하는 꼴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역설은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들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이 글은 자본, 국가, 행정 권력의 '외부'로 배치된 이들을 '비체'로 명명하면서, "그것을 더 잘 부인하기 위해 실컷 이용"(40면)하라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명령을 수행하려 한다.

분할의 경계에 배치된 법, 교육, 권력, 도시적 감수성, 경제적 합리성 등과 같은 분할의 기준들은 자본주의와 국가권력의 합종이 낳은 것으로서 낯선 것들이지만, 이러한 분할선이 생산한 경계의 바깥에 놓인 존재들이 과거 제국/식민의 관계에서 후자에 위치했던 주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은 익숙한 결과들이었다.

「모래톱 이야기」가 발표된 1966년부터 「산거족」이 발표된 1971년까지, 이 시기에 집중 발표된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들에는 앞서 말한 언캐니(Uncanny, 프로이트의 용어로는 Unheimlich)한 통치술이 가면을 바꾸면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이 유용하려는 본원적 축적, 면역정치, 국가폭력, 생명정치, 명예를 둘러싼 성원권 투쟁 등의 매개들은 가면 뒤에 숨겨진 권력 작용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 본고는 요산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얼굴의 정치권력에 의해 비체로 명명할 수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들이 외부화되는 배치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한 전집』(작가마을, 2008) 중 3권과 4권에 수록된 단편들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들은 1960년대의 참여문학론과 1970년대 민족문학론, 농민문학론, 민중문학론 등을 뒷받침하는 거점 역할[3]을 해 왔다. 권력에 저항적이었던 작가의 체험과 비판 정신이 한국 현대사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인물형이 민중문학론이 요청하는 전형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농지를 배경으로 제국-군부-자본의 결탁이 민중들을 삶의 터전에서 폭력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4] 등이

3)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 강진호 엮음, 새미, 2002, 40면.

4) 토지로부터 폭력적으로 농민들이 분리된 지점에 주목한 농민문학론은 김정한 소설을 독해하는 오래된 관점이었다. 염무웅, 「김정한의 사하촌」, 『농민문학론』, 신경림 엮음, 온누리, 1983. 조갑상, 「김정한 소설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1. 신경림,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창작과비평』 제7권 2호, 1972. 반면 권영빈의 논문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탈)개발의 미망과 땅의 정치성 -「제3병동」(1969), 「인간단지」(1970)를 중심으로」(『리터러시연구』 제13권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는 농민문학론과는 결을 달리하며 '땅'의 정치성에 주목했다는

이러한 이론들이 집중한 지점이었다. 1970년대에는 염무웅을 중심으로 창비 계열의 민중문학론과 민족문학론[5]이 그 뒤를 이었다. 김정한에 대한 연구 목록을 성실하게 정리하면서 그 한계점과 과제를 언급한 최미진[6]의 연구는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한 정리로서 매우 유효하다.

기존의 연구방법론들이 김정한의 소설을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농민들이 지배 권력에 의해 본래의 거주지에서 분리된 측면에만 주목할 경우 김정한의 소설에서 주로 등장하는 도시 부랑자, 광인, 질병감염자, 감염병환자 등의 다양한 비체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공백이 발생한다. 농민, 민중, 민족이라는 언어 개념이 다층적인 권력 작용의 결과 외부화되는 김정한 소설의 인물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지도 의문이다. 더불어 지역문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7] 또한 김정한 소설의 다양한 인물 유형을 내포하지 못하고, 로컬리티의 관점이 특정 지역에 국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방법을 근대성과 연결한 글로 읽히기에 충분해 보인다.

5) 염무웅, 「김정한론」,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4. 염무웅, 「농민소설의 민중문학적 맥락-김정한과 송기숙의 소설사적 위치에 관한 메모」, 『문예미학』 제9호, 문예미학회, 2002. 김병걸, 「김정한 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사』, 제7권 1호, 1972. 기존의 농민, 민족, 민중문학의 관점에서 김정한의 소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역시 가진 자- 못 가진 자, 권력자-타자, 그리고 지배계층-피지배계층 등의 분류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자본과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고는 그 차이가 자본과 권력에 국한되지 않고 장소, 질병, 정치술 등의 가면을 쓴 채로 다른 작동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을 다루려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6)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54집, 2010.(243~272면) 이 논문은 농민문학론에서부터 2000년대의 근대성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김정한의 소설을 연구한 목록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본고의 맥락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최미진의 정리가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 2000년대 이후 '로컬리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출된 지역문학론의 사례로는, 조갑상, 「요산 김정한 소설과 부산, 『현대소설연구』 제3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전성욱, 「장소사랑과 지역문학의 논리 -김정한 소설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18호, 동남어문학회, 2004. 문재원, 「요산 소설에 나타난 지역성과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한의 소설과 '농민문학', '민중문학', '지역문학' 간의 오래된 연결 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정치권력의 외부화 계보를 추적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존재들이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근대화의 외부로 재배치되는지 그 역사적 분리과정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김정한 소설에서 보이는 외부화의 계보들은 다음과 같았다. 제국의 식민지 수탈 과정의 외부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동원된 신체에 대한 국가폭력의 외부화, 농지수탈에 기입된 본원적 축적의 외부화, 감염병 환자와 도시 부랑자들과 같은 비체에 기입된 면역정치의 외부화, 그리고 한국 사회를 넘어서 전지구적으로 편재한 혐오의 외부화[8]가 그 계보들이다. 이 중에서 본고는 본원적 축적, 생명정치, 그리고 면역정치의 작동에 주목하면서 비체들이 외부화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본원적 축적과 청소

근대는 "소유의 지배와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이라는 자본권력을 추종하는 법률에 기초하여, "재산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종속시키는 공화주의"[9]라는 신화로부터 탄생했다. 이른바 소유공화국을 유일한 정치

8) 하상일, 「김정한 소설의 소수자 의식과 동아시아 민중 연대」, 『탐라문화』 제67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 2021. 이 논문에서 소수자로 명명된 존재들은 근대화의 희생자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로컬리티의 서사로 읽히는 연구를 동아시아적 장소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산서동 뒷이야기의」 '이리에쌍',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의 '하야시 노인'과 일본군인 '후지다'와 같은 인물들을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을 함께 묶음으로써 식민과 제국의 기억을 공유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점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공통체』, 앞의 책, 2014, 37~38면.

체제로 제도화한 이 신화는 소유의 비대칭과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반복 생산한다는 점에서 신화보다 폭력의 역사에 가깝다. 마르크스가 말한 '본원적 축적'[10]은 어떤 '공통적인 것' 위에 배타적인 사적 소유 개념을 정초함으로써 '공통적인 것의 기원을 삭제'한다는 점에서 역시 폭력에 다름없다. 이러한 지점은 김정한 소설을 재독하는 데 새로운 입사각을 제공한다.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유지나 국유지가 적산 불하 또는 불공정 매입의 방법으로 사적 소유화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권력과 비체들 간의 갈등을 대상화하는 내러티브는 김정한 소설의 마스터 플롯으로 반복되고 있다. 거칠게 나열해도 『전집3,4』권에 수록된 작품 중 「모래톱 이야기」(1966), 「평지」(1968), 「독메」(1970), 「인간단지」(1970), 「실조」(1970), 「산거족」(1971)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11]

조마이섬은,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갖은 풍상과 홍수를 겪어 오는 동

10) 마르크스는 『자본론 I 』의 마지막 장인 〈제8편-이른바 시초축적〉에서 '본원적 축적(시초 축적, 원초적 축적)'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본관계의 시작은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의 소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본원적 축적은 생산자와 생산수단 - 여기서는 조마이섬 사람들을 포함한 '비체'들과 공유지 또는 국유지로서의 땅 - 사이의 역사적인 분리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 본원적 축적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자기 소유지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로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순간에 주목한다. 농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은 노동하는 신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생산관계를 정초하는 전체 과정의 토대인 셈이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K.마르크스, 〈제8편-이른바 시초축적〉, 『자본론 I (하)』,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1989. 이후 인용은 본문에 (저자;면수)로 표기함.

11) 땅의 복원을 통해 농민들의 근본적인 생산수단을 확충하려는 '이 노인'과 근대화를 내면화하면서 세태변화를 추종하는 '마을의 젊은 패거리들' 간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 「실조」(1970), 마삿등 사람들의 수원(水原) 확보를 위해 산의 우물을 개척하는 '황거칠' 노인의 노력이 적산 불하를 받은 '호동팔'과 '호동수' 형제의 사유화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과정을 다룬 「산거족」(1971), 음성 나환자 수용소인 〈자유원〉의 사람들과 부랑아 수양원인 〈희망원〉의 사람들이 함께 일군 공동 경작지를 '박성일 원장'이 불법적으로 사유화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룬 「인간단지」(1970) 등의 내용이 대표적 사례이다.

> 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땅인데, 일제 때는 억울하게도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가, 해방 후부터는 어떤 국회의원의 명의로 둔갑이 되었는가 하면, 그 뒤는 또 그 조마이섬 앞강의 매립허가를 얻은 어떤 다른 유력자의 앞으로 넘어가 있다든가 하는- 말하자면, 선조 때부터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아오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도깨비처럼 뒤바뀌고 있다는, 섬의 내력을 적은 글이었다. (「모래톱 이야기」, 『전집3』, 12~13면)

인용은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의 시작점인 「모래톱 이야기」(1966)에서 '건우'의 작문 〈섬 얘기〉에 적힌 '조마이섬'의 내력으로, 권력자와 민중들 사이에 땅을 둘러싼 억압과 투쟁의 사례로 가장 빈번하게 소환되는 장면이다. 조마이섬은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생성된 공통의 소유("선조 때부터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아오던 사람들")였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국("일본사람")과 정치권력("국회의원")을 거쳐 자본권력("유력자")의 소유로 탈바꿈했다. 원초적 또는 씨족적 소유의 '공통적인 것'이 자본관계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조마이섬 사람들을 노동조건의 소유로부터 분리시킨 것이다. 이 '본원적 축적'의 과정과 홍수라는 자연재해의 중첩으로 인해 조마이섬의 토착거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자신들의 생산수단으로부터 외부화되었다.

「독메」(1970)의 인물들이 처한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 점이의 수양아버지 강노인 댁의 산소가 있는 독메가 구포에 사는 어떤 사업가에게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강노인 댁의 산소 일대는 강노인 개인의 산판이었지만 독메의 대부분은 국유 임야인데, 그 국유 임야를 불하받는 사업가가 그 산 전체를 자기들의 가족묘지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개인 소유까지 적당한 시세로 사들이련다는 것이다. (「독메」, 『전집4』, 20면)

「독메」(1970)의 경우, 중심인물 '점이'의 고향은 낙동강 유역의 "비뚤 납작한 초가집들이 〈점재〉해 있는 망망한 평야"(11면) 중 하나였다. 오랜 시간 소유권 없이 공유지였던 이곳은 "일제 때는 거의가 일인들의 소유"로 사유화되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인들의 소작인"(11면)으로 전락하면서 식민지 생산수단의 외부로 배치되었다. 3·1운동 당시 '점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제 땅을 찾기 위한 투쟁에 참여했지만 소위 〈조센징〉들에게 허락된 장소는 〈까막소〉[12]이거나 무덤뿐이었다. 이곳은 "해방이 되어도 핏값을 못 찾은 땅"(12면)이었다.

가족이 해체되고 외부화된 이후 '점이'는 "고아처럼 되어 남의 수양딸"(12면)로 지내다 현재는 구포시장에서 채소를 팔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있다. 폭이 좁을 길을 무섭게 달리는 '트럭들'을 피해 "한 쪽 옆으로 바싹 붙어가야만"(17족) 하는 '점이'의 리어카는 위태로운 삶 자체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현재 그녀의 맏딸은 "〈근대화〉가 눈부시게 이뤄져 가는 강 건너 구포"의 어느 "공장"(13면)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농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이 노동하는 신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생산한다는 마르크스의 진단은 이 지점에 적용된다. 구포다리를 사이에 둔 '독메'와 '구포'[13]의 대조적 배치처럼, '점이'의 삶은 '땅'과 '근대'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근대화의 진행과 맞물려 이들의 삶은 "띄엄띄엄 떨어져서 자리"(11면)를 잡은 '독메'(돌산, 홀로 서있는 산)와 닮았다.

「평지(油菜)」(1968)에서는 외부화된 토착민들이 도시의 프롤레타리아트로 흡수되고, 그들의 토지가 국가 경제발전의 생산수단으로 편입되는

12) '까막소'를 주체들의 파국과 재출발의 가능성이 암시된 장소로 분석한 논문으로, 문재원, 「김정한 소설의 공간정치 - '까막소'에서 '미륵당'까지」, 『현대소설연구』 76, 2019.

13) "강 건너 구포 쪽에 있는 높다란 집들에는 벌써 전등이 켜졌다. 아직 햇구멍도 채 안 막혔는데 곳곳에 네온(네온사인)과 샨데리아가 찬란하게 일렁거린다. 곧 도회의 흥겨운 환락이 시작되려는 것이다." (「독메」, 『전집4』, 27면)

과정이 더 명확해진다. ‘허생원’ 일가의 삶터인 땅은 현재 “휴면법인재산”(69면)으로 등기되어 있다. 예전에는 일인들의 소유였던 이 평지밭은 “〈농업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어떤 유력자에게로 넘어간다는 소문”(69면)과 “어떤 유력자의 손으로 넘어가 소위 규모가 큰 근대식 농장이 될 거라는 소문”(71면)의 대상이 되었다.

제국주의에서 군부정권으로 얼굴을 바꾼 정치권력은 자본과 결탁하면서 본원적 축적을 복습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관계 형성 과정의 일차적 단계가 ‘분리’라면, 그 다음 단계는 ‘흡수’와 ‘청소’다. 토지로부터 농민들을 축출한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흡수하고 장애요소는 청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휴면법인재산”이었던 국유지는 ‘허생원’의 손을 떠나 농업근대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대상(유채의 씨앗이 “외화 획득의 고급 튀김기름의 원료”(71면)로 팔린다는 소문)으로 흡수되고, “방직공장에 다니는 둘째 딸 영숙이와 자동차 수리공장에 나가는 둘째 아들 태식이”(68면)는 도시 노동자의 신체로 변신한다.[14] 또 ‘허생원’의 맏아들은 “월남전의 참전용사”(69면)이다. ‘허생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맏아들의 이력이 ‘소문’에 노출된 그들 가족의 위태로운 삶을 보호해 줄 희망으로 믿고 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맏아들의 신체는 국가개발의 자본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동원된 용병일 뿐이다.

‘흡수’의 이면에서는 ‘청소’가 진행된다. 공유지에 대한 ‘엔클로저’ 운동과 사유지에서 토착민들을 축출하는 청소는 다른 말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은 최후의 대수탈 과정은 이른바 ‘사유지 청소[즉 사유지로부터의 인간의 청소]”(마르크스:916)[15]라고 말한다. 즉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장데기 아들과 딸”(69면)이 휴일임에도 괭이를 메고 들에 나서는 것은 도시 노동자의 삶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15) 마르크스는 이 ‘청소’의 사례로 18세기 스코틀랜드 고지의 켈트인들이 영국여왕과 영국 정부에 의해 그들의 토지로부터 완벽하게 축출된 후 공장도시의 노동자로 편입된 사례를 들고 있

사유화 과정에서 청소 대상은 땅이 아니라 '인간'이다. 여기서의 인간은 김정한의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간(다움)'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산출된다. 배제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프롤레타리아트적 신체로의 변신이 불가능하거나(장애와 질병에 노출된 존재들), 이를 거부하는(구태의연한 영농방법을 고수하는 농민) '비체'들에 가깝다. 이들이 모두 '청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흡수'와 '청소'의 목적은 자본관계 형성의 결과인 근대화에 있다.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장면이 유독 도드라지는 「평지」에서 김정한의 소설은 지주/농민 또는 유력자/토착민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권력관계에서, 근대/전근대 또는 자본/비체로 표상되는 자본관계로 확장되고 있다.

> 농촌 경제가 어떠니, 구태의연한 영농방법을 버리고 **근대화**를 해야 되느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느니, 또 도시에 **주택단지 공업단지**가 서듯이 농촌에는 **식량단지**, **채소단지**, 심지어 **돼지단지**까지 있어야 하느니 등, 그야말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유익한 얘기**들이 꼬리를 물 듯 계속되었다. (「평지」, 『전집3』, 76면. 강조-인용자.)

인용문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단지' 조성은 토지를 비롯한 물질적 생산의 대상이 자본의 대규모 생산수단으로 기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6] 휴면 토지를 사유화하려는 어느 유력자의 비서인 "청년신사"(76면)의 말

다. K. 마르크스, 앞의 책, 916~918면 참조.

16)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를 만든 변혁의 서곡은 15세기 마지막 1/3과 16세기의 첫 수십 년 동안 연주되었다. 우선 봉건적 가신집단이 해체됨으로써, 대량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노동시장에 투입되었다. 대봉건영주 자신들도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축출하고, 공유지를 횡령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을 자극한 것은 특히 플랑드르의 양모 매뉴팩처의 번영과 그에 따르는 양모 가격의 등귀였다. 화폐가 모든 권력 중의 권력이 된 시대에 새로운 귀족은 경작지를 목양지로 전환하고 이들은 토지로부터 농민을 축출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의 노동계급은 어떤 과도적 중간단계도 없이 그의 황금시대로부터 철기시대로 전락하였다." K.마르크스, 앞의 책, 903~904면.

은 어디까지나 '단지'로 명명되는 새로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들에게만 "유익한 얘기"일 뿐, '허생원'을 비롯한 토착거주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는 벚꽃 철을 위해 증편된 "진해행 임시 열차"(70면)와 이를 바라보는 농사꾼들이 대비되는 장면과 함께 근대화의 과정에서 '허생원' 일가가 소외된 채 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마르크스는 〈농촌주민으로부터의 토지수탈〉이라는 장의 결론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자비한 폭력 아래에서 수행된 교회 재산의 약탈, 국유지의 사기적 양도, 공유지의 횡령, 봉건적 및 씨족적 소유의 약탈과 그것의 근대적 사적 소유로의 전환 - 이것들은 모두 시초축적의 목가적 방법이었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였으며, 토지를 자본에 결합시켰으며, 도시의 산업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를 공급하게 되었다."(K.마르크스;922) 본원적 축적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사례는 김정한 소설의 사례들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는 김정한 소설이 지닌 놀라움이 아니라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의 시공간이 되는 196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생산관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생산수단의 배타적 소유로 인한 노동력의 착취와 잉여가치의 축적을 취했던 초기 자본주의 형태와 달리 현대의 자본주의는 비물질적 생산이 지배적인 자본가 지대(rent)의 형태를 띠면서 생산과정을 외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질적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관계에 묶여 있는 '노동'과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는 결과를 낳았던 초기 자본주의 구축과는 그 방식이 달라졌지만, 이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에 더 가깝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본원적 축적이 가해진 시작점에 해당한다. 제국/식민 체제의 시기 국토재정비 방식을 통한 식민지 수탈이 진행되던 장소에서 피식민지 신체들은 조선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삶에서 국경을 넘어 제국의 외부로 축출되면서 노동하는 신

체로의 변화를 겪었다.[17] 그리고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은 그 이후 1960년대 전국종합개발계획[18]이 실시되던 제3공화국의 개발독재 시절에 주목하면서 본원적 축적의 반복 양상의 사례를 서사화하고 있다.

3. 법과 노예

본원적 축적 과정은 지주와 자본가들을 지배자로 만들었다. 마르크스는 이들을 "돈벌이꾼들"(마르크스;910)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진행되던 국유지 횡령을 방대한 규모로 실시하였다. 국유지는 불법적으로 증여되거나 헐값으로 팔아 넘겨지거나 또는 직접적 횡령에 의해 사유지로 병합되었다. 또한 부르주아적 자본가는 토지를 자유매매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며, 대규모 농업생산의 영역을 확대하며, 농촌으로부터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을 비호하였다. 영국에서의 이 모든 과정은 명예혁명(1688년)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수탈하고 국유지를 사유지로 병합하는 과정에 법률이 보조적 출연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말이다.

---

17) 일제 시대의 본원적 축적에 대한 사례로서 차승기의 논문은 '흥남'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살피고 있다. 차승기, 「식민주의적 신체의 변신을 위하여」, 『역사문제연구』 32, 2014.

18) 한국의 국토계획은 1963년에 제3공화국에 의해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기본골격으로 수립되었다. 이는 제1~2공화국에서 수립한 〈경제개발5개년계획〉(1954~1958)과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1962)이 불리한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비되어,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원용한 하향식개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UN에서도 "제2차 10개년 개발연대"를 추진하던 1960년대의 시대적 흐름에 호응하여 국토계획 기본구상이 공포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70년대 초에 공포되고 시행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근간이 되었다. (본원적 축적의 반복 운동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의 국토계획과 제3공화국의 국토계획 간의 유사성에 대한 보충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참조.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20&pageFlag=&sitePage=

> **공유지**는 (방금 고찰한 국유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봉건주의의 덮개 밑에서 존속한 고대 게른만적 제도였다. 우리가 이미 본 것과 같이, 공유지에 대한 폭력적 약탈은 대개는 경작지를 **목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수반하면서 15세기 말엽에 시작되었으며 16세기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과정은 개인적 폭행의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입법**은 150년간이나 항쟁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8세기에는 법률 자체가 국민의 공유지를 약탈하는 도구로 되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차지농업가(大借地農業家)들이 자기들 대로의 사소한 별개의 사적 방법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 **약탈의 의회적 형태는 "공유지 엔클로저법", 다시 말하면 지주가 국민의 토지를 사유지로서 자기 자신에게 증여하는 법령, 국민 수탈의 법령**이다.
>
> (K.마르크스;911~912. 강조-인용자)

개인적인 폭력의 형태로 진행되던 약탈과 대단지로의 전환은 '법률'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마르크스에게 "공유지 엔클로저법"이 본원적 축적 과정의 법률대리인이라면, 김정한의 소설에서는 적산불하와 국유지불하를 합법화시킨 법률이 대표적 보조출연으로 기능하고 있다.

「산거족」(1971)을 대표로 살펴보면, '호동팔'은 '황거칠' 노인이 만든 첫 번째 산수도지를 적산불하의 방식으로 사유화한다. '호동팔'과 '호동수' 형제는 일제-미군정-군부정권으로 이어지는 권력과 결탁하는 방식("와? 우리 할배는 청국사람이고, 우리 아배는 미국사람, 우리 엄매는 일본사람이다 와?", 125면)으로 자본권력을 증식해 왔다. '황거칠' 노인이 만든 두 번째 산수도가 묻힌 국유임야는 장관을 역임했던 어느 유력자에게 불하되었다. 이들은 법률을 형식주의적으로 전유하면서 근대적 행정에 어두운 "따라지들"(118면)의 무지를 공략한다.

반면 주인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국유임야에 우물을 파고 식수도를 개발한 '황거칠' 노인의 저항은 "공무집행 방해"와 "산주의 권리행사 방

해” 그리고 “폭행죄”(이상, 127면)로 규정된다. “경찰이라면 만정이 떨어지는 백성들”(137면)에게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은 비대칭적으로 작동되는 정치기술(“법이란 것도 결과적으로는 땅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꼴”, 146면)에 불과하다.[19] 이들이 이용하는 대항법률인 “연판장”과 “대통령 탄원서”(143면)은 물론이거니와 원초적 소유를 주장하는 연고권도 힘이 없다(“연곳권을 가주고 대들라 캐도 국유지에는 시효취득이 인정 안 댄다카이…….”, 147면). 국유임야의 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한 ‘T촌 사람들’과 마삿등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든 〈S산 불하 취소 투쟁위원회〉의 투쟁이 신문에 실리는 등의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힘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조상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대통령 감사장을 무덤에 묻어버리는 장면은 법률의 불평등과 정치의 무능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권력의 무능과 미필적 고의 그리고 법률의 불평등한 적용은 비체들을 근대화의 외부로 배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는 성원권 박탈과 연관된다. 성원권은 장소에 대한 권리와 승인에 관계한다. 성원권은 일종의 권력관계라는 말이다. 환대와 추방, 또는 흡수와 청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함축하는 권력 작용의 결과이다. 권력 작용은 본원적 축적을 통해 공통적인 것을 사유화한 ‘돈벌레꾼들’은 주인의 위치에 서게 하고, 외부로 배치되면서 성원권을 박탈당한 비체들을 노예의 자리에 서게 한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배타적 지배는 주인이 노예에게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법률은 그들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의례적 폭력의 행사 권리를 부여한 꼴이 된다. 그리고 노예된 자들은 완전한 고립

19) 「평지」에서도 법률의 선택적 작동이 비판된다. 유력자의 비서로 등장한 어느 청년신사와의 싸움 이후 허생원은 “〈법률〉에 가서는 농민은 약한 것이다.”, “촌사람들끼리 같으면 그까짓 코피 정도는 암것도 아닌데, 법도 사람 따라 다른가, 그저 야속하고 억울할 따름”(79면)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과 무력함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김정한의 소설에서 비체들이 선 자리이다. "소유권은 사람과 물건(여기서는 땅, 인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20]라는 말은 최소한 김정한의 소설이 만들어 낸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무력하다. 노예된 자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사회의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노예된 자는 다른 사람들 특히 주인의 눈앞에서는 동등한 인간으로 현상하지 않는다.

한나 아렌트는 권력을 "행위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잠재적 현상 공간이 공론 영역을 존재하게 하는 것"[21]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은 권력의 정의가 소유의 공동체인 '우리'의 영역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카르텔을 만드는 능력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이 보호하는 '유력자'는 그들만의 '우리'를 생산함으로써 법률의 보호막 아래에 서지만, 공론 영역에서 배제된 비체들은 무기력하다. 그래서 이들은 기껏 직접적 폭력으로 맞설 뿐이다. 「모래톱 이야기」의 '갈밭새 영감'과 「평지」의 '허생원'이 보여준 원초적 분노는 문제의 근원에 가닿지 못한다. '유력자'들은 폴리스를 구성하지만, 비체들은 폴리스의 바깥에 배치된 채 목소리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정한의 소설에서 진짜 권력의 모습이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유력자'라는 표현의 모호함은 권력이 그들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검정 양복', '젊은 비서', "청년 신사"(「산서동 뒷이야기」, 174면)', "새까만 관용차"(「모래톱 이야기」, 37면)와 "검정 지이프차"(「뒷기미 나루」, 269면) 등의 상징적 표현 아래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 삶-정치를 내면화한 동조자들과 외부로 배치된 비체들 간의 투쟁으로 사건의 핵심을 우회시키는 전략은 은폐된 권력의 비겁함을 가리킨다. 모호

20)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39면. 이후 인용은 본문에 (저자:면수)로 표기함.

21)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262면. 이후 인용은 본문에 (저자:면수)로 표기함.

한 장막과 비겁한 정치술로 인해 자본관계의 근본적 기획자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은폐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자본 권력의 기본 특성이기도 하다. 대리자의 존재성 자체가 자본권력의 힘이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산거족」과 「인간단지」에서 보여주는 법률적 대응 또한 정확한 타격 지점을 찾지 못한 채 오발탄이 되고 만다. 근본적인 권력 작동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김정한의 소설은 외부화된 타자들의 저항이 근본적인 모순에 이르지 못하는 시대적 한계를 지시하면서 을과 을의 싸움에까지 잠복된 자본관계의 편재성을 역설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4. 수용과 격리

본원적 축적 과정을 서사화한 김정한의 소설은 자본권력과 결탁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토착거주민들을 사회의 외부로 배치하는 생명정치(bio-politics)의 통치술을 폭로하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정식이 김정한의 소설과 불일치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자본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청소' 당한 토착거주민들이 도시의 노동자로 흡수되지 못한 채 부랑자, 화전민, 광인, 질병보균자 등 완전한 비체의 모습으로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에서 완전한 자본주의의 생산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정한의 소설이 본원적 축적 이외의 다른 정치적 작동의 결과로 재독되어야 할 필요성을 요청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은 이 빈틈을 메우면서 작동한다.

생명정치는 먼저 신체의 구속으로 시작된다. 김정한의 소설집에서 주변적 위치에 놓인 듯한 「과정」(1967)과 「입대」(1967)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당 존재를 '인간'으로부터 구별 짓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과정」은 통일문제와 권력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대중 강연을 한 '허연 교수'의 구속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가 형무소의 신입이 되는 "입소 수속"은 옷을

벗음으로써 인간(성)을 지우고(“야위고 시들은 자기의 육체를 느끼다가 문득 히틀러의 가스실을 연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입을 크게 벌렷!”, “두 팔 번쩍 들어!”, 이상 43면), 자기를 증명할 성원권이 박탈되는 과정(“이제부터 이름이 필요 없어. 1147호다”, 44면)을 거친다. 또 「입대」에서 화자의 아들은 행정의 후진성으로 인해 갑자기 입대하게 된다. 소설은 병역비리에 동원되는 부당한 권력과 초라하고 가여워 보이는 입대 청년들의 모습(“힘없는 얼굴들”, “때묻은 함바지들”, “한다한 거지들이다!”, 이상 65면)을 대비시킨다. 「과정」에서 홀로코스트의 학살을 떠올리게 한 김정한의 소설은 「입대」에서 청년들의 모습에서 “포로병이나 죄수들”(65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어빙 고프먼은 『수용소』[22]에서 인격에 가해지는 체계적인 모독의 테크닉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선 작품들에서 진술된 수용과 격리를 이해하는 유효한 관점을 제공한다. 책의 1장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과정에서 자아가 모욕 받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물로 규격화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입소의 의례들은 신체의 수색, 수감번호, 사적소유물의 박탈과 동일한 물품 제공, 집단 행동을 위한 규칙(획일적인 시간, 특정 동작과 자세의 강요, 복장 통일 등), 체벌과 조롱 등에 노출되는 과정이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신입은 인격의 모독에 익숙해지며, 그의 신체는 비일상적인 환경에 노출된다. 이러한 총체적 테크닉의 목적은 무엇보다 신입 수용자의 인격을 부정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시설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사회적 역할을 박탈당하게 된다.”(고프먼;28)

이러한 지점을 김정한의 두 소설에 적용해 볼 때, 「과정」의 ‘허연’과 「입대」의 청년이 수용의 과정에서 느끼는 모독은 해당 존재가 사회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 이미 죽은 사람(모독mortification에는 죽음mort을 의미

22) 어빙 고프먼, 『수용소』, 심보선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8. 이후 인용은 본문에 (저자;면수)로 표기함.

하는 어원이 들어있다)이 되는 데에서 느끼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불편해하는 강의 내용, 부당하고 후진적인 행정의 무능이 두 소설에서 인물들이 입소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점은 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존재를 '청소'하고 외부화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따라서 제도적 절차를 거쳐 인물들을 모욕하고 '인간'으로부터 구별 짓는 과정의 작품들은 김정한의 소설이 좀 더 비극적으로 역진화한 외부화의 경계 지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축생도」(1968)는 '비체'의 신체가 가장 원초적이고 비극적으로 배치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인물 '바우'와 '분통이' 부부는 가혹한 노동 환경과 대가뭄이라는 자연재해에 처해 있다. 농촌의 가뭄을 관리해야 할 "수리조합"(105면)은 이들의 마을을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함으로써 조합이 공통적인 것의 관리에 무능하고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사건은 출산 직후 힘든 노동에 노출된 '분통이'가 심한 '젖몸살'로 인해 사경을 헤매게 되어 '바우'가 읍내의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바우의 비에 젖은 몰골"(114면)과 지독한 노동과 질병에 시달린 후 "달구지"(114면)에 실려 온 '분통이'의 신체는 이들의 가난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들이 들렀던 세 곳의 병원은 이들의 수용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결국 바우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나뭇전 거리에 있는 무슨 가축병원"(115면)이었다.

> 가축병원이란 데는 소위 일반 병원과는 달라서, 까다로운 문간도 없고, 그저 허름한 갈대밭만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아마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을 끌고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 싶었다. ……
>
> "돼집니까?" ……
>
> "사람 아니오?"
>
> 수의사는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바우 쪽을 되돌아보았다.
>
> "사람은 병원엘 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나 돼지 같은 짐승밖에 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보시오?"

"다 가보았임더. 그러나 아무데서도……"

바우의 말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하소연같이 들렸다.

(「축생도」, 『전집3』, 115~116면)

해당 장면은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생명정치의 비극적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호소하는 하소연은 가축병원 수의사의 호의[23]를 이끌어냈지만, 이 장면에서 소설은 '인간'을 '비체'로 외부화하면서 차별화된 장소(가축병원)에 배치하는 권력 작용의 결과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때의 권력 작용은 오염물(가난, 노동하는 신체, 비위생, 달구지 등)이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근대적 동일성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염의 대상을 주체의 바깥으로 청소하고 자본의 경계로 편입될 수 없는 존재로 라벨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은 근대의 위생학이나 면역정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에서 다른 작품을 통해 다루려 한다.

이 지점을 김정한의 부작의적 의도성으로 보는 이유는 명백한 비체들이 이후의 소설들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채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굴살이」(1969)는 도시의 '빌딩'과 대조되는 어느 '토굴'에서 동물보다 낮은 지위에 처한 한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그녀는 1960~70년대 이른바 '무작정 상경 소녀'들의 일반적 경로인 '식모-여공(여차장)'으로 이어지는 도시하위주체들의 삶을 살다가,[24] 상이 군인이었던 남편의 죽음과 고모부로부터 보험사기를 당하고 결국 "동물원"(239면)과 인근의 어느 토굴에서 살고 있다. 소설은 화자(대학 교수)가 "즈로즈"(속옷, 243면)도 입지

23) 경찰에 불려 간 수의사가 이후 "국민의료법 위반"(118면)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후사는 법률이 불합리와 불평등을 방조 또는 승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4)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들의 경로와 국가경제발전의 도구로 전락한 사례로는, 김영삼, 「'객관적 폭력'의 비가시성과 폐제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1), 2016.

않은 채 산을 오르는 그녀를 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인간 이하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여성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김정한의 소설은 토지를 둘러 싼 본원적 축적의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시의 하위주체들의 삶과 비체로 분류되는 존재들에게로 확장되고 있다.

5. 면역정치와 재배치

로베르트 에스포지토[25]는 근대 주권을 일종의 '면역정치' 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전염병 환자의 분리는 질병에 노출된 존재를 격리시킴으로써 병의 확산을 막아내는 기획의 일환이다. 면역, 즉 '임무니타스'는 개인과 타인을 묶어주는 구체적 의무나 책임을 의미하는 '무누스'의 일시적 혹은 확정적 면제에 기초한다. 따라서 임무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무니타스'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바에 대한 방어와 저항으로 나타나고, 외부의 힘을 막아 내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둘의 관계성은 인류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와 그 구성원 사이에 형성

25)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사회면역』, 윤병언 옮김, 크리티카, 2023. 이후 인용은 본문에 (저자; 면수)로 표기함. 저자는 책의 첫 장에서 '무누스(munus)'를 공유하는 '코무니타스(communitas)'와 '임무니타스(immunitas)'의 관계성을 설명한다. '무누스(munus)'는 의무, 책무, 업무를 뜻하는 동시에 선사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무니타스(communitas)'와 '면역성'을 의미하는 '임무니타스(immunitas)'가 유래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타자에 대한 선사 의무를 공유하는 반면, 임무니타스의 범주에 속하거나 속한다고 선포되는 이들은 이 의무에서 면제된다. 즉 면역은 공동체의 의무로부터 탈출하는 방식으로만 기입된다.
에스포지토는 자신이 주장한 '면역'의 패러다임이 푸코의 생명정치가 지닌 격차, 즉 '생명'과 '정치' 사이의 격차(권력이 생명/삶에 가하는 폭력에 치중하는 부정적 생명정치와 생명/삶이 권력 자체를 흡수하는 상반된 관점 사이의 모순과 충돌)를 좁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에스포지토가 주장하는 이런 보충의 지점은 푸코의 생명정치만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김정한의 소설에서 본원적 축적으로 모두 설명되지 못하는 작품들을 읽어내는 보충 또한 제공한다.

된 이율배반적 관계성에 노출되었다. 팬데믹은 공동체와 면역성 사이의 오래된 상호보완적 관계를 예외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26] 오랜 기간 면역정치는 특정 외부 인자(병원체이거나 타자)를 공동체 내부로 받아들임으로써 면역성을 높이는 방식을 면역의 역사적 방법론을 승인해왔다. 그러나 외부 인자가 자가 면역의 한계를 초과해버린 팬데믹의 경험은 코무니타스와 임무니타스 간의 오래된 계약을 파기하게 했다. 그래서 현재의 면역정치는 질병의 신체를 완전 격리하고 이질적인 것을 공동체 바깥으로 외부화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관리하고 있다. 면역정치의 이러한 현재성은 한국 사회의 폭력적 외부화를 폭로한 김정한의 오래 전 소설로 소급 가능해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코무니타스는 타자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의무(환대, 증여, 선물)를 공동으로 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코무니타스는 타자에게 열려 있는 개방성을 본질로 삼는다. 이런 이유로 코무니타스는 외부의 공격(전쟁, 질병, 방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무니타스의 유지를 위해 공동체에는 외부의 요소(타자)를 막아내는 보호 장치가 필요했다. 임무니타스의 구성 원리는 바로 이 역설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공동체가 없다면 보호 장치는 불필요하고, 보호 장치가 없다면 공동체는 위험에 직면한다. 코무니타스와 임무니타스는 어원적 관계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차원에서도 서로를 전제로 삼는다. 문제는 임무니타스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코무니타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외부로 통하는 통로가 폐쇄되면 공동체는 일종의 감옥이 된다. 김정한 소설에서 등장하는 집단 격리와 그들에 대한 성원권

26) 에스포지토는 코무니타스와 임무니타스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생명정치 체제가 절정에 달한 오늘날만큼 정치가 생명/삶의 보호와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정치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별적인 종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류 전체의 생명이다. 코무니타스와 임무니타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중첩되는 지점에서, 각자의 생명은 오로지 모두의 생명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에스포지토;291)

박탈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제3병동」(1969)에서 "전염병 환자 수용"(121면) 공간으로 제시되는 '제3병동'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비체(abject)'의 본래적 의미로서의 '오염된 것', '죽음과 부패를 연상하게 하는 것'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읽으면 작가의 의도가 더 명백해진다.

> 제3병동이라면, 새로 선 현대식 고층건물인 1,2병동의 북쪽 뒷구석에 남아 있는 낡은 구식 건물로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원들까지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이다. 현재 헐려가고는 있지만, 남쪽에 있는 역시 낡은 보일러실과 소독실을 겸한 2층 건물에 가리어,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아래층은 더욱 그러했다.
>
> 아마 2층 세면소가 있는 짬이리라. 천장에서 무시로 물이 뚝뚝 새어 떨어지게 마련인, 어둠침침한 골마루부터가 그렇다. 게다가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시커먼 마룻바닥! 대체로, **축축한 그 청 밑에 미라같이 말라붙은 시체라도 누워 있어서,** 날씨가 덜 좋은 밤중이면 **도깨비**라도 불쑥 튀어나와서 저켠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올 듯한 - 그런, 묵고 퀴퀴한 집이다.
>
> 또 하나 질색인 것은 귀곡성 같은 인간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마련인 **시체 안치소**가 가깝다는 거다. 그런데대 전등마저 밝은 걸 달아 주지 않는다.
>
> 이러한 조건들만으로도, 의사나 간호원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제3병동이란 데가 바로 **전염병 환자들만을 수용하는 곳**이란 데 있다. 그래서 거기를 드나드는 의사나 간호원들은 언제나 커다란 마스크로 코와 입짬을 덮싸고 있다. 수간호원은 간호원실에 앉아있을 때도 **좀처럼 마스크를 떼지 않았다**. (「제3병동」, 『전집3』, 120~121면. 강조-인용자.)

축축한 물, 썩은 마룻바닥, 퀴퀴한 냄새, 시체 안치소, 전염병 등의 언

어들은 그대로 죽음과 질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브젝트적 표현들은 즉각적으로 혐오의 정서를 유발한다.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를 "역겨워 보이는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자신이 저열해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27]는 사고로 정의한다. 어떤 역겨운 대상이 주체의 체내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쾌의 반응이 혐오의 시작이다. 토사물이나 배설물을 포함해서 썩은 물질과 죽음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체는 오염의 대상을 규정하고 외부화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생산하고 강화한다.

'제3병동'의 위치만이 아니라 이곳에 입원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서도 위와 같은 혐오의 정서를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대적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된 젊은 의사 '김종우'에게 '늘밭골'에서 온 환자 '오롱댁 심작은둘' 노파와 그녀를 간호하는 딸 '강남옥'은 그야말로 "3등 인간"(123면)[28]이다. '김종우'의 시선에 비친 '강남옥'은 "분홍빛 고무신", "낡고 늘어진 런닝샤스"(126면), 속옷 허릿말의 구멍으로 비치는 "검고 뻣뻣한 고무줄"(127면) 등으로 표상된다. 이 표현들은 비위생, 전근대적인 삶과 신체, 촌스러움, 가난, 삭제된 성차를 의미한다.

근대적 과학자의 시선을 내재한 젊은 의사에게 전염병 환자인 어머니와 음식과 잠자리를 공유하다가 자신도 감염이 된 '강남옥'의 행위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로 해석된다. "그저 자연의 폭력 앞에 무참히 쓰러져 간 인간의 운명"(122면)에 대한 연민으로 '김종우'는 병원의 방침을 어기고 치료비를 도와주며 침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여기서 '강남옥'의 이타적 행위를 보면서 그가 느끼는 "정신적인

27)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168면. 이후 인용은 본문에 (저자;면수)로 표기함.

28) "3등실에는 간호하는 가족들이 누울 침대라고는 없다. 차디찬 청바닥 – 모두 신을 신은 채 다니는 먼지투성이의 청바닥 뿐이다. 물론 3등실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3등 인간이란 건지 모른다. 그들의 가족들도 따라서 3등 인간이기 때문에 병상 곁 청바닥에 노다지 자야하고." (「제3병동」, 123면)

회의 내지 불안감"(124면)은 이성적 합리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숭고나 감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는 해석되지 않는 외부적 요소를 자신의 방식(돈, 연민)으로 재배치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단지」(1970)는 「제3병동」의 문제의식을 복습 강화하면서 작가의 세계관을 소유권을 둘러싼 권력 작용의 바깥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간단지」는 음성 나환자라는 비체들이 근대화의 외부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정치기술의 폭로를 복습하지만, 나약한 존재들로 보였던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성원권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장소를 개척하고 권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양상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앞선 작품들과 중첩되는 요소[29]들을 잠시 접어 두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아래와 같다.

> 아무도 아르켜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되끌려 간 이유는 그들 자신이 곧 깨달았다. — **일종의 격리다**. 병 — 육체의 — 그것도 남에게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 본래의 목적에 의한 격리가 아니다. 정신 문제다. **정신상의 병 — 불의와 부정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협잡배와 위선자를 고발한다, 규탄한다, 이것이 병이란 거다.** 남이 동조한다. 그것은 선동에 의한 결과다. 말하자면 전염이다. 데모는 그와 같은 정신병의 완전한 전염이란 거다. 그러니까 **부정을 규탄하는 정신병자**는 대중으로부터 냉큼, 그리고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 이런 투다.
>
> 그렇다면 — 가령, 박성일 원장이나 그를 두둔하고 감싸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중신 노인이나 치구같은 사람은 확실히 무서운 보균

29) 「인간단지」의 서사는 음성 나환자들(〈자유원〉-음성 나환자 수용소)과 부랑 청소년들(〈희망원〉-부랑아 수양원) 간의 난투극은 은폐된 권력이 '을'들의 싸움으로 사건을 희석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두 장소의 공동 원장인 박성일(표면적으로 근대화의 적응에 실패한 존재들을 수용하고 갱생한다는 점에서 "애국사업가"로 불리지만, 사실은 국가의 지원금을 횡령하고 사유화하는 부패 인물로서 현재 "모종의 부정혐의"(33면)로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인물)을 본원적 축적을 통해 공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요소는 김정한 식 마스터플롯의 복습이다.

> 자임에 틀림없다. 전염의 우려성이 지극히 많은…… 그러니까 불평분자를 증오하는 그들로서는 오히려 당연한 처사다. (43면)

인용문은 〈자유원〉의 '우중신' 노인과 '이치구'가 국립 나환자 수용소에 입소하는 장면이다. '박성일' 원장의 부정을 폭로하는 (무력하기 짝이 없지만) "진정서"(34면)를 제출한 후 〈희망원〉의 부랑자들과 난투극을 벌인 이후의 조처에 의한 것이다. 법률로서 그들을 경찰서에 더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박성일' 원장과 카르텔을 형성한 행정이 작동하여, 두 사람이 음성 나환자로서 비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나환자 수용소로 격리된 것이다. 한 때 이곳에 수용된 적이 있었던 '우중신' 노인에게 이러한 재배치는 "격리 아닌 복귀"(43면)에 해당하지만,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미 '우중신'에게 허락된 장소는 없었는지도 모른다.[30] 에스포지토는 감금과 격리의 부정적 작용을 다음과 같이 우려한 바 있기도 하다. "면역이 생명의 '부정적인 보호 형식'이라는 것은 곧 면역이 생명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보호한다기보다는 생명을 구체적인 경계 안으로 유도하며 생명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구속시키면서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에스포지토;34) 이는 김정한의 「인간단지」에 그대로 적용된다.

권력이 이들을 격리한 목적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정신' 때문이다. "부정을 규탄하는 정신병자"들을 사회의 내부로 수용하기에는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진짜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고 전염의 차단이 가능하지만, 권력 내부의 시선으로 볼 때 정신의 질병은 치료와 전염 방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선의 조치는 그들을 보호와 갱생의 대상에서 이탈시켜 다시 사회의 외부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전염 요인에 대한 격리라는 점에서 「인간단지」는 「제3병동」과 유사하지만, 격리의 대상을 사회를 비

30) "비록 음성이라고는 하지만, 눈이 뒤틀리고, 입이 삐뚤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져 나간 나환자들이 들어갈 감방은 없었다."(30면)

판하는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단지」는 「제3병동」의 면역정치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적 의미에서 타인과의 묶임으로부터 면제된 자율적 개인(감염자)의 임무니타스는 공동체(코무니타스)에 대한 부정과 결여라는 의미로 제시된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순간 공동체의 보호막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김정한의 소설에서 이른바 유력자들(본원적 축적을 통해 자본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한 인물들)은 임무니타스에게 부여된 이러한 면제를 다른 방식으로 전유한다. 면역은 집단 발병 또는 공동체 전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정치 작용이지만, 김정한 소설에서의 권력자들은 이 면제의 권리를 '오염물에 대한 격리', '전근대적인 요소들에 대한 무시(명예의 박탈)', '혐오의 확장'으로 치환했다. 그들에게 '외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바깥으로부터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내부에 함께 있었던 요소들이다. 이들은 근대화를 발판삼아 권력과 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집단(부랑자, 도시 노동자로 편입되지 못한 존재들, 본원적 축적 과정에서 희생된 채 상처를 지닌 존재들 등)들을 외부 요소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부정과 결여'의 방식으로 이를 이행한다.

6. 나가며; 확장의 과제들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고의 최초 기획은 김정한의 소설에 기입된 '농민문학', '민중문학', '지역문학'이라는 오래된 연결 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서 정치권력의 외부화 계보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제국 권력의 외부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과 같은 국가폭력의 외부화, 본원적 축적의 외부화, 면역정치의 외부화, 그리고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혐오

의 외부화가 그 계보였다. 이를 통해 김정한의 소설이 21세기의 현재 세계에서도 여전히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자본관계, 삶-정치적 권력관계, 팬데믹 이후의 면역정치의 모순을 어쩌면 50여 년 전에 앞서서 진단한 '오래된 미래'였다는 제안을 염두하고 김정한의 후반기 소설을 재독해보았다.

약간의 사족을 덧붙이자면 「곰」(1968)에 등장한 상이군인 '허하사'의 "절룸발이"(82면) 신체, 「지옥변」(1970)에서 '차돌이' 아버지로 대표되는 "일본군의 징용노무자"(283면)의 죽음, 「평지」에서 베트남전쟁에 동원된 허생원 맏아들 '용이'의 신원불상상태,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래톱 이야기」의 건우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국가폭력의 외부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전쟁은 인구의 일부를 차출하여 사람의 지위를 박탈하고 권력 게임의 소모품으로 만든다. 죽음에 자리에 선 군인들은 일상을 정지시킨 예외상태의 주권권력이 국가의 인민을 언제든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예외상태로 만들어 버린 정치술의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군인의 신체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로 강등"(김현경;42)되어 있는 것과 같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의 경우는 제국의 식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인종, 국가, 지역, 성별을 횡단하면서 편재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전지구적 혐오의 외부화'의 디딤돌이 될 만한 작품이다. 소설에서 오키나와는 해방 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수출(징용 아니고 수출이지만 여전히 자본 축적의 대상화)되는 장소였고, 과거 일본군 위안부였던 조선인들이 귀환 후 생존했던 장소(제국의 성 착취 피해자가 성 혐오의 대상으로 이중적으로 외부화된 장소)라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 특히 이곳은 1879년 메이지 정부에 의해 오키나와 현으로 복속되기 전까지 '류쿠 왕국'이었고,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의 최후의 치열한 전투 장소이기도 했다. 이는 오키나와가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의 피해 장소라는 점에서 한국의 역사와 공명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지

점들에 대한 사유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어빙 고프먼은『상호작용 의례』에서 "얼굴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부나 표면이 아니라, 만남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흐름 속에 퍼져 있다"[31]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얼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가능해 지는 것이며, 그때 우리의 얼굴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 서로의 얼굴에 대해 이러한 의례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를 '인간' 또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김정한의 소설들에서 다양한 정치작용의 결과로 외부로 재배치된 (비)인간다움은 얼굴과 명예에 연루된 수행성의 결여에 대한 작가의 분노이자 공감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31) 어빙 고프먼,『상호작용 의례』, 진수미 옮김, 아카넷, 2013, 19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정한, 『김정한 전집 3권/4권』, 작가마을, 2008.

2. 단행본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 강진호 엮음, 새미, 2002.

K.마르크스, 〈제8편-이른바 시초축적〉, 『자본론 Ⅰ(하)』,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1989.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사회면역』, 윤병언 옮김, 크리티카, 2023.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공통체』, 정남영 · 윤영광 옮김, 사월의 책, 2014.

어빙 고프먼, 『상호작용 의례』, 진수미 옮김, 아카넷, 2013.

어빙 고프먼, 『수용소』, 심보선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8.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서민원 옮김, 동문선, 2001.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3. 논문

권영빈,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탈)개발의 미망과 땅의 정치성 -「제3병동」(1969), 「인간단지」(1970)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제13권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김병걸, 「김정한 문학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사』, 제7권 1호, 1972.

김영삼, 「'객관적 폭력'의 비가시성과 폐제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1), 2016.

문재원, 「김정한 소설의 공간정치 - '까막소'에서 '미륵당'까지」, 『현대소설연구』 76, 2019.

문재원, 「요산 소설에 나타난 지역성과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신경림,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창작과비평』 제7권 2호, 1972.

염무웅, 「김정한론」,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비평사, 1974.

염무웅, 「김정한의 사하촌」, 『농민문학론』, 신경림 엮음, 온누리, 1983.

염무웅, 「농민소설의 민중문학적 맥락-김정한과 송기숙의 소설사적 위치에 관한 메모

」,『문예미학』 제9호, 문예미학회, 2002.
전성욱,「장소사랑과 지역문학의 논리 -김정한 소설의 낙동강을 중심으로」,『동남어문논집』 제18호, 동남어문학회, 2004.
조갑상,「김정한 소설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1.
조갑상,「요산 김정한 소설과 부산,『현대소설연구』 제3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차승기,「식민주의적 신체의 변신을 위하여」,『역사문제연구』 32, 2014.
최미진,「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한국문학논총』 제54집, 2010.(243~272면)
하상일,「김정한 소설의 소수자 의식과 동아시아 민중 연대」,『탐라문화』 제67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 2021.

<Abstract>

Redistribution of abjects through primitive accumulation and immunity politics
－Focusing on Kim Jeong-han's later novels

Kim, Young Sam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abjects’ are externalized by power in Kim Jeong-han’s novels.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is the externalization of primitive accumulation, the externalization of biopolitics, and the externalization of immunopolitics. In Kim Jeong-han’s novels, modernity is defined as the construction of the outside produced by power. Chapter 2 analyzes “The Story of the Sandbar” and “Dokmae” from the perspective of “primitive accumulation.” The characters are reduced to objects of “separation” and “cleansing.” The embezzlement of state-owned land is all the more tragic in that it was carried out by law.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operated asymmetrically. This point is analyzed in Chapter 3. Chapter 4 analyzes “Chu-saeng-do”, “Course” and “Enlistment” as the operation of biopolitics. Biopolitics relocated the bodies of abjects to discriminatory places while operating the technique of systematic insult. Chapter 5 analyzes the power function that externalizes those infected with diseases from the perspective of immunopolitics. “The Third Ward” and “Human Complex” are examples.

Key words: Kim Jung-han, primitive accumulation, biopolitics, immunity politics, non-body, state violence, right to vote, redistribution

투 고 일 : 2024년 11월 28일 심 사 일 :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 2024년 12월 27일